



눈높이 사랑을 실천하는 친교와 나눔의 시간

이 문 환 신부 / 의정부성모 원목실

대자연, 사랑, 희생, 자유, 행복, 기쁨, 단순성, 순수
하느님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대상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열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였다. 몽골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과 미소가 아른거린다. 비록 문화와 종교와 환경은 다르지만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 있음을 4일간의 의료 봉사 체험 안에서 느낄 수 있었다. 얼굴은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고 생명에 대한 한결같은 바람과 가치는 더욱 더 동일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함께 만났던 몽골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존재의 흔적을 분명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지만 아픈 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다. 또한 어느 오랜 선교 활동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위안을 삼는다.

“선교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느님의 신념을 만나는 이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자갈란트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만화영화와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DVD를 보여주는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진은 준비해 갔던 학용품과 운동기구 등을 선물하고 있는 장면.
 2 한국 문화의 전통 체험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같은 눈높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문화행사. 사진은 몽골 어린이들과 함께 한국 전통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하고 있는 장면

몽골의 선교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선교사 분들의 노고와 열성에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사랑의 날개' 봉사단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좋은 기회를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행사 보고

몽골 해외의료지원사업 문화행사는 한국 문화의 전통 체험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같은 눈높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친교와 나눔의 시간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 및 영화 상영, 건강 강좌, 리셉션, 문화·운동·민속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진료 봉사 4일 동안 꼼꼼히 계획했던 다양한 문화행사들은 자갈란트 지역(보건소)의 공간적인 협소함과 쌀쌀한 날씨, 그리고 일조(日照)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자갈란트 보건소 내에 위치한 재활치료실(4평 남짓의 공간)을 활용해 놀이방을 운영하였다. 놀이방을 찾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술풍선 불기, 성서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스티커 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놀이방 운영은 진료를 받기 위해 온 어른들의 고민을 덜어 주는 유익한 행사이기도 했다.

첫째날은 바깥 날씨가 좋지 않아 아이들 40~50여 명과 함께 환자 대기실에서 줄넘기, 제기차기, 훌라후프 등을 진행하였다. 놀이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선물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

둘째날과 셋째날은 인근의 학교를 답사하여 학교 측의 협조 하에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초·중·고 학생들을 200명씩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한국의 문화에 대한 비디오 상영과 재미있고 교훈적인 내용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다만 문화행사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간접선교의 의미 전달이 부족하여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남았다.

또한 사설 유아원(원아 80여 명)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케치북을 경품으로 한 아이들의 장기자랑 시간은 매우 흐뭇했다. 🐦